

2019년 6월 22일,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동노인회관, 류진옥 조사.

현봉길(여, 1934년생, 서귀포시 정방동)

- 서귀포시 서호동 출생, 20대에 몇 년간 타지 생활 이후 서귀포에서 살았다. 현재 15년째 정방동에서 살고 있다.

- 줄거리: 자청비가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 남장을 하고 한양으로 공부하러 갔다. 자청비는 똑똑하여 모든 면에서 남자들보다 앞섰다.

[제보자] 자청비 말도 있고 옛날에 막 그런 것들 많아.

자청비는 아주 부제칩인데 곱고, 또 남자가 있고. 저 있는 게 아니고, 남자는 도령님이라고 옛날에 이제 딴 동네가 있는데, 이제 막 서로가 좋아해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는,

물 내리는데 해가지고는 나무 이파리를 물에 흘리워가지고는 그거를 건져서 허니까는 그 남자가 공부를 어디 한양으로 공부하러 간대니깐 여자는 남자복을 출려 가지고는 그 남자 따라서, 똑 남자?치룩 그 자청비가 곱이 갖거든. 이도령 광 ?치룩 허게스리.

경혜네 곱이 간 공부허멍 헤엇어. 헌디 똑 여자는 같은데 절대 여자처럼 아니 해서 똑 남자?치룩만 출려 하니까는 오줌내기를 헛거든, 오줌 쌀 내기를.

오줌 쌀 내기를 허니까는 어떻게 똑똑헌지 그 여자가 대봉통을 딱 하게스리 자궁, 자궁드레 찢러가지고는 오줌 싸는데 남자보단 더 멀리 갔다 해여. (웃음)

그런 얘기들이 막 옛날말로 잘 곱앙 들어났어 우리도. 할머니들한테.

- 핵심어: 자청비(자청비), 도령, 오줌내기(오줌싸기 내기), 대봉통(대나무통), 이파리